

지스트, 카자흐스탄 고려한글학교에 온라인 해외사회공헌 활동 펼쳐

- 11월 20일과 27일, 과학 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스트 해외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한글학교 학생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지난 11월 20일(토)과 27일(토) 양일에 걸쳐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한글학교(토요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한글학교는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우리말과 글, 문화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과 '홍익인간이란 교훈과 한민족 정체성 확립, 문화의 다양성 포용,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세계적인 육성'이란 목표로 2012년 4월 6일 설립되어 매주 토요일 9세에서 15세 사이의 고려인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4시간씩 한국어와 한국문화, 태권도,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스트 2021 해외사회공헌'은 저개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과학문화 활동 및 현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일(토)에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27일(토)에는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스트 국제교류팀은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과학키트, 전통놀이 물품, 한복, 한국 과자와 컵라면 등을 수업 참가 학생을 비롯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현지 학교에 전달하였다.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부생인 고소은(신소재공학부) 학생과 김채림(화학과) 학생이 멘토로 참여하여 이날 수업 주제인 '세포'와 'DNA'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관련된 키트 만들기(동물세포&식물세포 모형 키트, DNA 이중나선키트, 자외선 야광 DNA 팔찌 키트)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Zarina Altybay(생명과학부, 카자흐스탄 출신) 학생이 러시아어 통역을 맡아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K-pop 노래와 춤 배우기, 한복 입기, 전통놀이(제기차기, 윷놀이, 연 만들기) 배우기를 지스트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였으며, K-pop 댄스는 지스트 학부동아리인 '막무가내'에서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제작하여 현지 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고려한글학교의 학생들은 현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과학 실험 키트 활동이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는 후기와 예쁜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현지 교사들도 지스트에서 한국 과자, 라면, 학용품, 전통놀이 및 과학실험 물품, 한복을 적극 지원해주어 풍족하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스트 해외사회공헌은 저개발국가의 교육 격차 해소와 과학 문화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Global Science Camp라는 사업명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현지에 지스트 연구원 및 동아리 JIU와 한빛회 학생들이 방문하여 과학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였으나,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